



유통업계
생리대 부담 덜다
1+1 초저가 경쟁
L1

metro®

Life

건기식 ODM
글로벌 플랫폼
도약
L2



M 수입차 News

BYD코리아 ‘천하제빵’ 브랜드 파트너 참여

BYD코리아가 MBN 예능 프로그램 ‘천하제빵: 베이커 유어 드림’에 브랜드 파트너로 참여하며 고객과의 접점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BYD 씨라리언7

‘천하제빵: 베이커 유어 드림’은 최근 하나의 식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은 ‘K-빵’ 열풍을 조명하고, 세계 최강의 제빵사를 가리는 국내 최초 ‘K-베이커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프로그램의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철학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브랜드와 제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강의 베이커로 선정된 프로그램 우승자에게는 BYD의 프리미엄 중형 전기 SUV ‘BYD 씨라리언 7(BYD SEALION 7)’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가장 안전한 ‘도심형 소형차’ 선정

MINI 코리아는 디 올-일렉트릭 M INI 쿠퍼가 유럽의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이 발표한 ‘2025 가장 안전한 도심형 소형차’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는 유로 NCAP이 지난해 테스트한 차량들을 종합 평가해 선정한 차급별 가장 안전한 모델 중 ‘2025 가장 안전한 도심형 소형차’에 이름을 올리며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는 실제 주행 상황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에서 SE는 물론 JCW까지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의 모든 라인업이 최상의 안전성을 입증하며, 경쟁 모델 대비 안전성 우위를 공식적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볼보자동차코리아 ‘마니또 클럽’에 주요모델 5종 지원

볼보자동차코리아가 MBC 신규 예능 ‘마니또 클럽’에 플래그십 SUV ‘XC90’과 플래그십 세단 ‘S90’, 중형 SUV ‘XC60’, 콤팩트 SUV ‘XC40’, 순수전기 SUV ‘EX30 크로스컨트리(CC)’ 등 주요 모델 5종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마니또클럽에 지원하는 XC90.

이만식 볼보자동차코리아 전무이사는 “예측할 수 없는 미션과 빠른 전가가 특징인 마니또 클럽을 통해 볼보차 주요 모델들이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경험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내·주행·연비 업그레이드 소형 SUV ‘최강자’의 귀환



The all-new Seltos

YG의 CAR TALK 카톡

디 올 뉴 셀토스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절대 강자인 셀토스가 실내 거주성과 첨단 기술을 강화해 돌아왔다. 최근 차량의 크기가 커지면서 중형 SUV의 주행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들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기아 ‘디 올 뉴 셀토스’의 효율성과 정숙성을 앞세운 하이브리드 모델의 주행 성능을 경험하기 위해 시승을 진행했다. 시승 구간은 왕복 약 90km로, 도심과 고속도로, 국도 등 일상적인 주행환경을 포함했다.

◆주차 부담 줄이고, 실내공간 더 넓어져
소형 SUV 셀토스의 매력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면서 느낄 수 있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하는 중형, 대형 SUV와 달리 초보 운전자의 심리적 부담이 크지 않다. 우선 셀토스의 회전 반경은 약 5.3m로 좁은 공간에서도 비교적 쉽게 주차할 수 있고, 후측방/사라운드 뷰 등 주차 보조 기능이 주차 편의성을 크게 높여준다. 특히 운전석에 앉으면 전폭이 넓어지며 전방 시야가 안정적이었고, 사이드미러도 큼직해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실내 공간은 기존 소형 SUV 대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셀토스는 기존 모델 대비 전장 40mm, 축간거리 60mm, 전폭 30mm 확대돼 전장 4430mm, 축간거리 2690mm, 전폭 1830mm, 전고 1600mm이다. 특히 2열 헤드룸과 레그룸이 각각 14mm, 25mm 늘어났다. 2열은 최대 24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리클라이닝 시트를 장착했다. 단순히 공간이 넓어졌다는 느낌보다 편안해졌다.

회전반경 짧아, 주행·주차 부담 완화
기존보다 실내공간 넓고, 편리해져
하이브리드 장착… 연료효율 극대화
주행상황 판단 ‘스마트 제동 시스템’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 옵션 제공도

◆연료 효율성·주행성능 ↑

셀토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최대 강점인 연료 효율성은 도심에서 극대화됐다.

서울 도심과 간선도로에서 셀토스 1.6 하이브리드는 부드러운 주행을 이어갔다.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차처럼 모터 위주로 움직이며 빠른 응답성을 자랑했다. 이후 속력을 높이자 엔진이 개입했지만 진동이나 이질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특히 엔진이 개입하는 순간의 정숙성은 이전 세대보다 한층 진화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3.0은 도심 주행에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 기능은 단순히 차량 속도 감속 시 회생

제동을 진행하는게 아닌 앞차와의 거리, 도로 흐름, 주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차량 스스로 감속 강도를 조절해준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지 않아도 차가 스스로 도로의 흐름을 읽고 주행하는 느낌이 강했다.

연료 효율성은 하이브리드 차량 답게 만족스러운 수치를 기록했다. 셀토스 하이브리드는 1.6L 가솔린 엔진과 32kW급 구동모터의 결합으로 시스템 최고출력 141마력, 최대토크 27.0kgf·m, 최대 복합연비 19.5km/L를 확보한다. 도심과 고속도로를 주행한 결과 실제 연비는 18.6km/L를 기록했다.

◆나만의 작은 콘서트장

주행 중 애플플레이어로 음악을 재생하자 차량안은 어느새 조그만 공연장으로 바뀌었다.

이날 시승한 디 올 뉴 셀토스의 X라인에는 ‘바이브로 사운드 시트’가 옵션으로 제공됐다. 음악의 저음 영역대 주파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시트 진동으로 바꾸는 기술이다. 시트 쿠션의 하벽지와 등받이 하단에 위치한 4개의 진동자가 미세하게 ‘쿵쿵’ 두드리며 진동을 줬다.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한 뒤 주변 환경을 즐기는 동안 하만카돈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시트가 진동하자 이동하는 순간이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하루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나를 위한 쉼을 갖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셀토스는 강력함이나 속도감을 담지 않았다. 그러나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그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즐길 수 있는 차량이다.

2세대 셀토스 1.6 하이브리드 가격은 ▲트렌드 2898만원 ▲프레스티지 3208만원 ▲시그니처 3469만원 ▲X라인 3584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주행 모습.



기아 디 올 뉴 셀토스 실내.

/양성운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K리그1 인천, 다국적 무대에서 검증된 공격수 페리어 영입
▲여자농구 국민은행 박지수, 4라운드 MVP…통산 19번째 선정 /사진 뉴스시스

▲여자배구 최고 리베로 기업은행 임명옥,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우스
▲PSG, 거취 흔들리던 이강인 불잡기 나선다…“재계약 목표”

▲LPGA 투어 개막전 5위 황유민, 세계랭킹 4계단 오른 28위
▲혹한기 축구에 머리 싸맨 서울시·FC서울…2월 홈경기 신중 검토